

문화재청 공고 제2018-2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 및 지정명칭 변경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8. 2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연번	현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 (奉使朝鮮倡和詩卷)	1축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2	보물 제1405호	비해당 소상팔경시첩 (匪懈堂 瀟湘八景詩帖)	1첩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보살상 1구, 조성발원문 1점, 후령동 1점, 중수발원문 1점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2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울 七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불상 1구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칠보사

3	이익태 지영록 (李益泰 知瀛錄)	1책	국유 (국립제주박물관)
4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慶州 皇吾洞 金製耳飾)	1쌍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변경전	변경후			
1	보물 제455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	1쌍	국유 (국립 중앙박물관)	실제 지정된 현품과 지정번호 일치를 통 해 보존관리의 효 율성을 기하 자 함

라. 지정 예고 및 명칭 변경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

- 현 지정번호 : 보물 제1404호(2004. 5. 7 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축
- 규 격 : 33.2×1,600.0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자장(卷子裝)
- 조성연대 : 1450년(세종 32)
- 사 유

‘봉사조선창화시권’은 총 16m에 이르는 장권(張卷)으로, 세종 32년(1450)에 명나라 경제(景帝, 재위 1450~1457)의 등극 조서(詔書)를 가지고 조선에 사신으로 온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 1415~1479)이 그해 윤 정월부터 2월 3일까지 원접사(遠接使)인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등과 서로 주고받은 글 37편이 수록되었다. 가장 앞부분에 중국 시인 왕숙안(王叔安)이 「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倡和詩冊)」이라고 쓴 전서(篆書)가 있고 뒤이어 창화시(唱和詩)와 청나라 당한제(唐翰題)와 나진옥(羅振玉)이 쓴 발문이 있다.

총 37편의 작품 중 예겸의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와 이에 화답한 신숙주의 「화설제등루부(和雪霽登樓賦)」를 제외한 35편은 모두 시문으로, 지은이가 직접 글씨를 쓰고 자신의 인장을 함께 찍었다.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의 다양한 서체를 확인할 수 있고 오늘날 친필이 거의 전하지 않는 정인지·성삼문·신숙주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서예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명나라 사신과 조선의 관료가 문학수준을 겨루며 양국 간의 외교를 수행한 일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사에 있어 큰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 瀟湘八景詩帖)

- 현 지정번호 : 보물 제1405호(2004. 5. 7 지정)
- 지정명칭 :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 瀟湘八景詩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량 : 1첩
- 규격 : 42.0×33.2cm
- 재질 : 냉금전지(冷金箋紙)
- 판종 : 필사본
- 형식 : 절첩장
- 조성연대 : 1442년(세종 24)
- 사유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은 1442년(세종 24)에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 이용(安平大君 李瑢, 1418~1453)이 주도하여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주제로 당대 문인 21명의 글을 모아놓은 시첩이다. 첩의 앞부분에 수록된 이영서(李永瑞, ?~1450)의 서문에 의하면, 이 시첩은 1442년에 안평대군이 남송 대 영종(寧宗, 재위 1195~1224)의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를 얻은 것을 계기로, 영종의 시를 옮겨 적고 화공으로 하여금 「팔경도(八景圖)」를 그리게 한 다음 고려시대 진화(陳渾)와 이인로(李仁老)의 시를 붙인 뒤에 당시 시를 잘 짓는 문인들에게 오언·육언·칠언시를 짓게 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팔경시’와 ‘팔경도’는 전하지 않고 있다.

각 시는 대부분 작자의 친필 글씨로서, 이들의 유묵(遺墨)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문학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문학적인 의의가 매우 높다. 더욱이 이 시첩에 글을 남긴 성삼문(成三問), 박평년(朴彭年) 등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해 많은 명사들이 1426년(세조 2) 단종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됨으로써 이들의 진적(眞蹟)이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희소가치가 크다.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은 중국 문물을 수용하되 독자성을 갖춘 우리문화로 승화시켰다는 점, 왕실과 사대부 계층의 문화향유 양상, 15세기 서예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온 작품이다. 조선 전기 명가들의 친필 유작을 모은 유일한 자료이자 전래 경위도 분명한 만큼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물 지정 예고】

□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 명 칭 :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산로 190
- 수 량 : 보살상 1구, 복장유물 3점(조성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중수발원문 1점)
- 규 격 : 보살상 전체높이 67.0cm, 어깨폭 23.0cm, 슬폭 35.2cm, 슬고 8.5cm, 조성발원문 33.2×33.2cm, 중수발원문 33.2×22.7cm, 후령통 18×3.0cm
- 재 질 : 나무, 종이, 금속
- 조성연대 : 1649년(인조 27)
- 제작자 : 무염(無染), 성수(性修), 심인(心印), 상림(尙林), 경성(敬性)
- 사 유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 전국 각지에서 크게 활약한 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하여 성수, 심인, 상림, 경성 등 모두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 27)에 완성한 불상이다.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남아 있어 이 보살좌상이 원래 대둔산 묘련암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1907년 양주 천보산 불암사에 봉안하기 위해 개금 중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높이 67cm의 단아한 규모에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썼으며 가사는 두벌 겹쳐 입은 이중착의법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린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고 신체의 자연스런 양감이 돋보인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역삼각형을 이루었으나, 날렵하고 가름하게 처리한 턱 선, 높게 돌출된 코, 자비로운 인상에 실재감 있는 이목구비의 표현 등 1650년대를 전후로 아담하고 현실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무염이 참여한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후기 대표 조각승 무염이 수(首) 조각승을 맡아 제작한 작품으로, 정확한 제작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17세기 중엽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서울 七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 명 칭 :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서울 七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칠보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
- 수 량 : 불상 1구
- 규 격 : 높이 117.0 cm, 다리 좌우 폭 81.0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좌상
- 조성연대 : 1622년(광해군 14) 추정
- 제작자 : 현진(玄眞),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 추정
- 사 유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광해군 14) 광해군 정비 장렬왕후(章烈王后)가 왕족들과 친정부모의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해 왕실 원찰(願刹)인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한 11존(尊)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된다.

『칠보사연혁(七寶寺沿革)』에 따르면 이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불상(보물 제1621호)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법륜사(法輪寺)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20세기 초 비로자나불상은 지장암으로,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칠보사로 각각 이안(移安) 되었다고 한다. 법륜사는 영창대군의 원찰로 1661년(현종 2) 현종의 폐불정책에 의해 자수·인수사가 폐사되자 두 불상을 봉안한 사찰이다.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석가여래좌상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과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 당대 유명 조각승들이 합작해 만든 작품으로, 조각승들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불상이다. 머리와 상반신을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한 모습이다. 상반신은 허리가 짧고 어깨가 넓은 반면 하반신은 다리가 높아 현진 특유의 조각 경향이 느껴진다. 반면 턱을 수평으로 깎은 네모진 얼굴에 양 볼이 볼록하게 양감이 살아 있으며, 작고 가는 눈에 오뚝한 코, 미소가 있는 작은 입 등 단정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은 수연의 작품의 연상시킨다.

조성배경과 조각양식에 있어 칠보사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 불상’과 거의 상통한다. 두 상 모두 중량감 넘치는 비례와 형태미가 특징이며 중후한 기풍과 위엄, 무게감을 두루 갖추었다. 기법이 화려하지 않고 비교적 간결하지만 힘이 넘치며 17세기 전반 불상 중에서 수준 높은 작품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작품이다.

□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

- 명 칭 :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제주박물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 수 량 : 1책
- 규 격 : 26.4×17.6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筆寫本)
- 조성연대 : 1696년(숙종 22)
- 제작자 : 이익태(李益泰, 1633~1704)
- 사 유

‘이익태 지영록(李益泰 知瀛錄)’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1633~1704)가 1694년(숙종 20)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래 1696년(숙종 22) 9월까지 재임 기간 중의 업무와 행적, 제주 관련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서명인 ‘지영록(知瀛錄)’에서의 ‘영(瀛)’은 ‘영주(瀛州)’를 의미하며 이는 제주의 옛 지명이다. 서문에 의하면 이익태는 제주목사를 역임하면서 알게 된 제주도의 열악한 생활상과 누적된 폐단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참고하기를 바라며 기록으로 남겼다.

수록된 내용은 이익태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기까지의 여정, 재임기간 중의 공무수행, 제주도 부임시의 행적과 그 과정에서 지은 시·제문·기행문 등이며, 특히 조선인 또는 일본인의 표류(漂流)에 관한 기록이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 그 중 1687년(숙종 13) 8월 김대황(金大璜)이라는 제주도민이 출항 후 파도에 휩쓸려 베트남[安南]에 이르렀다가 귀국한 내용인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은 조선시대 베트남 관련 기록으로 희소성이 있다.

‘이익태 지영록’은 제주도의 문화 및 지명 등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외국인의 표류 상황에 관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표류민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보물 제652호로 지정된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1704년)보다 8년이나 빠른 것으로, 연대가 가장 앞서는 제주도 최초의 인문지리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慶州 皇吾洞 金製耳飾)

- 명 칭 :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慶州 皇吾洞 金製耳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쌍
- 규 격 : 전체 길이 8.8cm. 주환 직경 3.4cm, 폭 2.3cm. 무게 53.4g
- 재 질 : 금(金)
- 조성연대 : 신라 5세기말~6세기 초
- 사 유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는 1949년 경주 황오동 52호분에서 출토된 귀걸이 한 쌍으로, 외형상 주고리[主環], 중간식, 마감장식의 삼단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신라시대 5~6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이다. 귀에 거는 주고리[主環]는 굽고 중간은 이파리 모양의 장식물이 이중으로 달려 있고 가장 아랫단에는 펜촉형 장식으로 마감하였다.

중심고리에 장식은 없지만 접합 부위가 매우 세밀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을 만큼 세공 기술이 뛰어나고 작은 구슬 장식도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다. 또한 입체형인 펜촉형 장식물의 안팎으로 작은 금알갱이를 촘촘하게 부착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귀걸이는 전형적인 경주식(慶州式) 태환이식이라는 점, 제작기법 및 조형성이 우수하고 펜촉형 장식물의 창의적인 형태와 볼륨감이 돋보이는 점 등에서 신라 고분 금속공예품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며, 신라시대 장신구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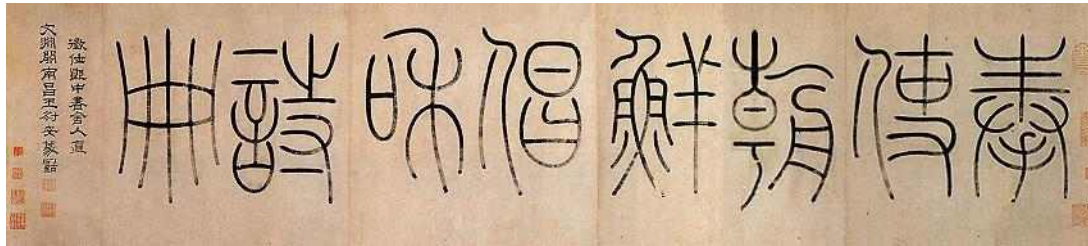


사진1. 봉사조선창화시권-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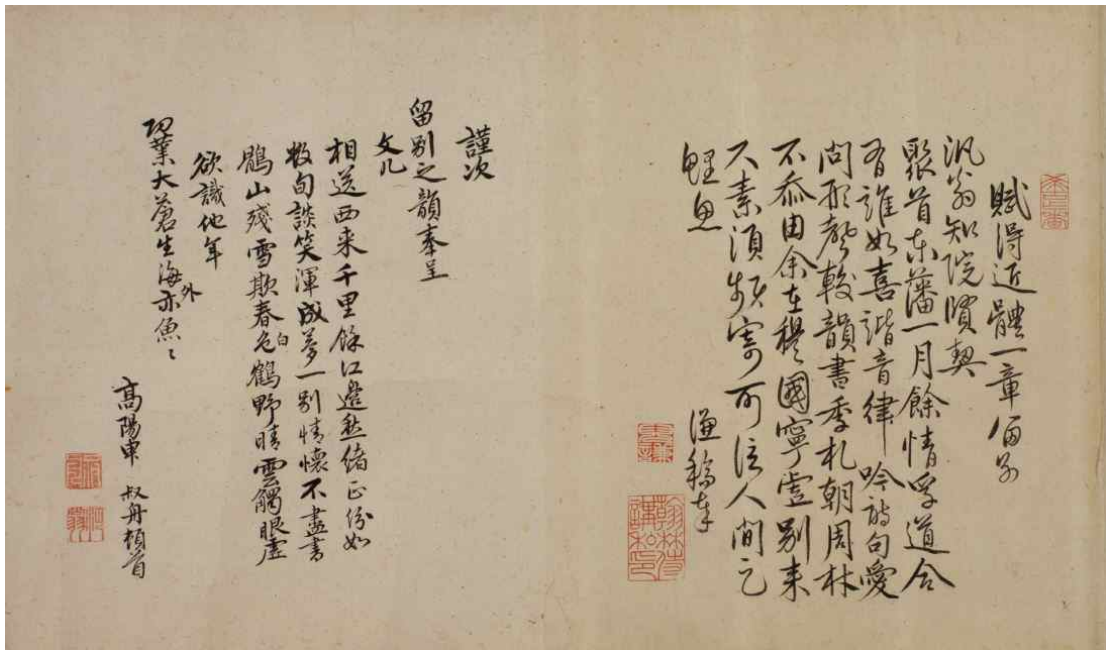


사진1-1. 봉사조선창화시권-예겸(우)과 신숙주(좌)의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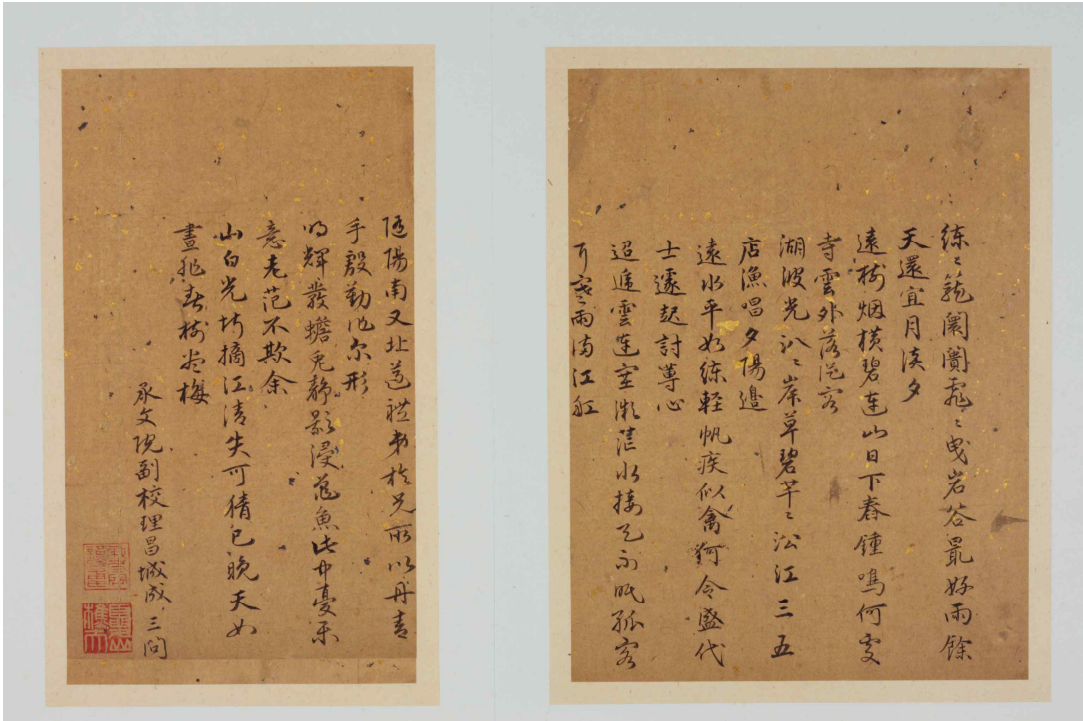


사진2. 비해당 소장 팔경시첩-성삼문 글씨



사진3.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진4.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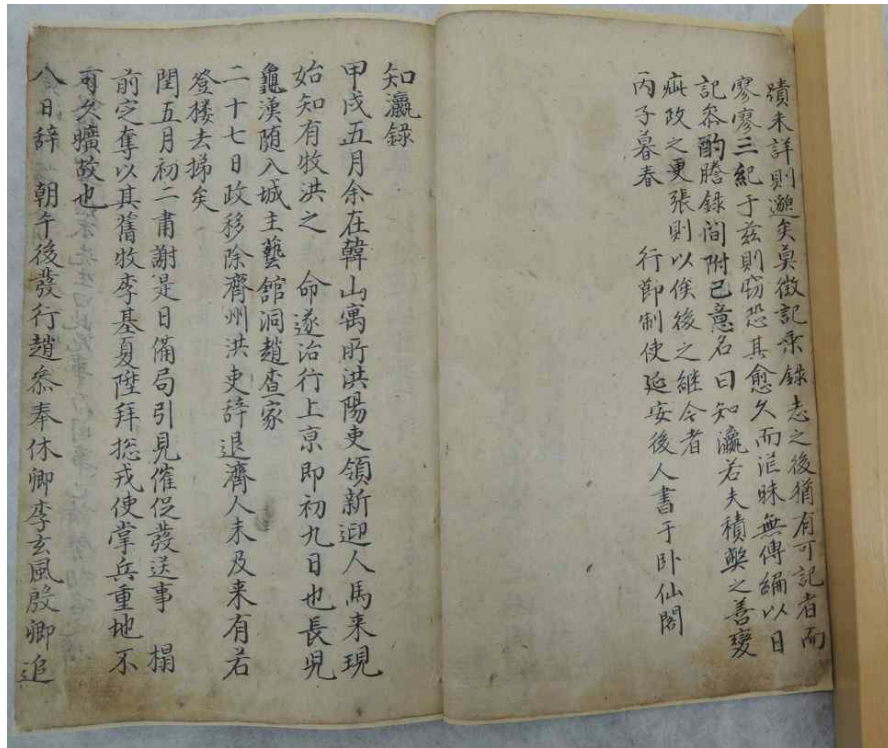


사진5. 이익태 지영록-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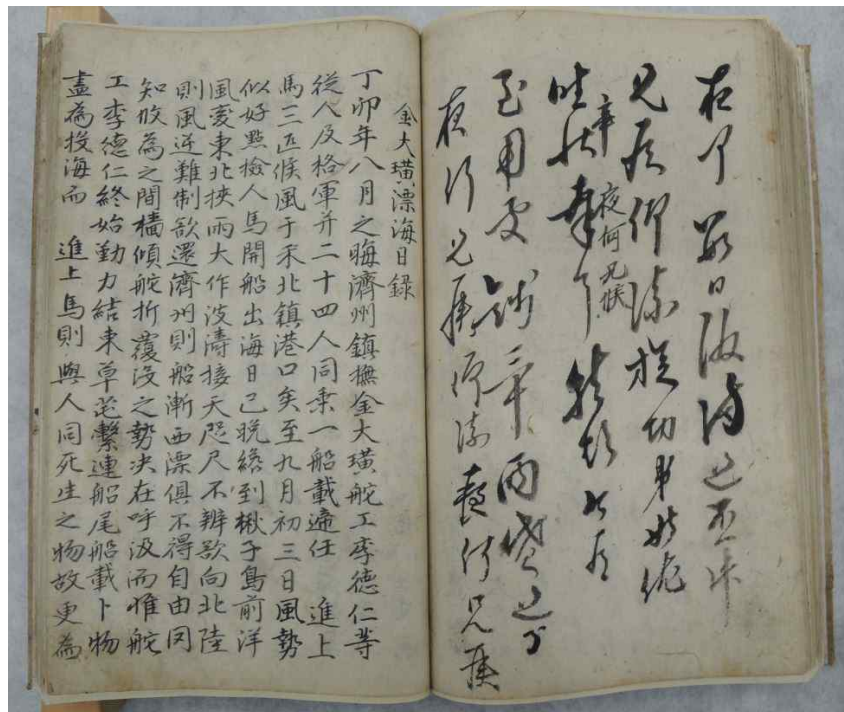


사진5-1. 이익태 지영록-김대황표해일록



사진6.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